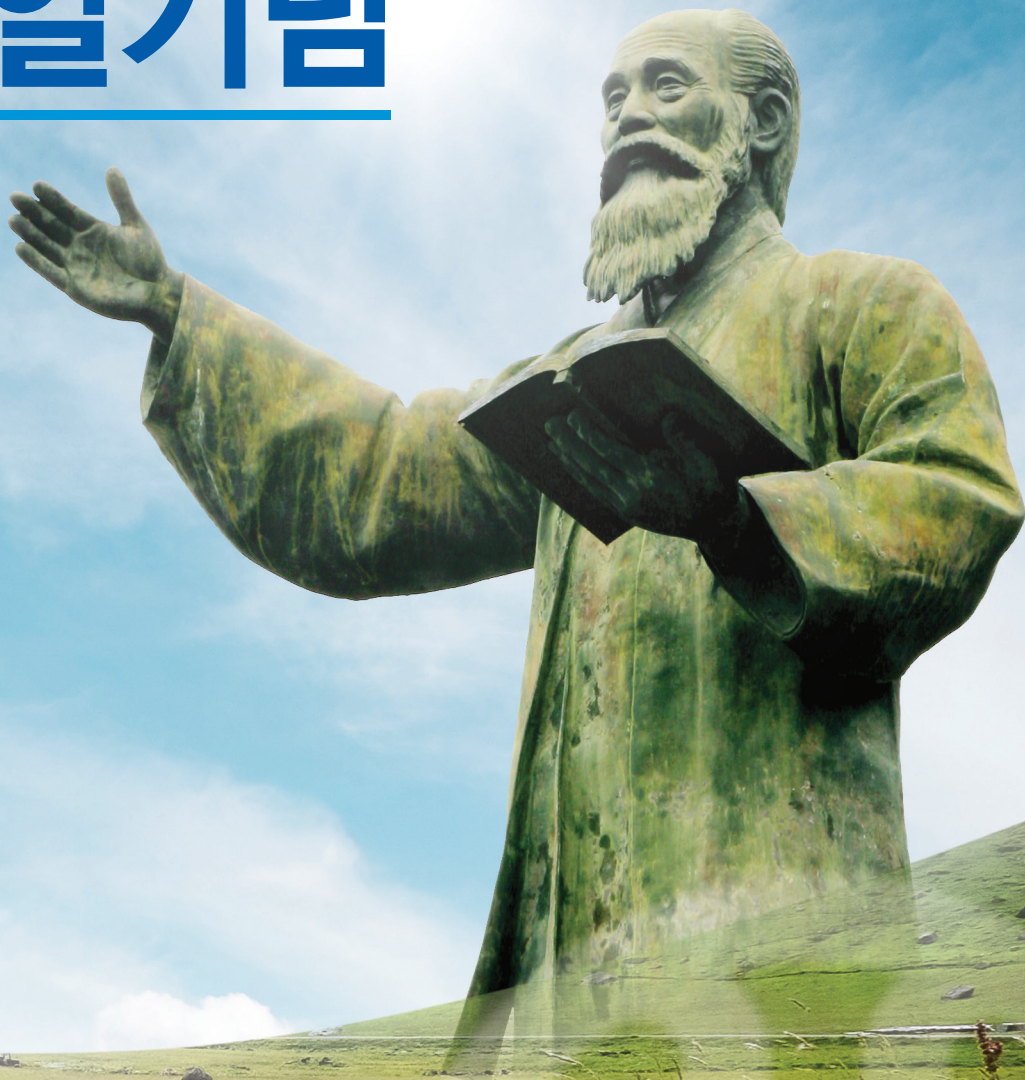

제159주년
지일기념



포덕 163(2022)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59주년

地 日 기 념



포덕 163년 8월 14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제29장 지일기념가	14
해월신사 법설_ 守心正氣(수심정기)	17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신사 약력	22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守心正氣(수심정기)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29장 지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사인여천국민화합문화제]

- 문화공연
- 강의
- 다함께 수련

[제31회 미술인회 한마당전]

- 전시기간 : 8월 14일(시일)-21일(시일)
- 전시장소 : 수운회관 4층 전시실

기 념 사

존경하는 국내외 동덕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사께서 도통을 이어 받으신지 159주년이 되는 지일기념
일입니다.

‘용담수류사해원(龍潭水流四海源)

검약인재일편심(劔岳人在一片心)’

이 글은 대신사께서 해월신사께 심법을 전하시면서 주신 결시(訣
詩)입니다. 대신사의 심법이 세상의 근본이 될 것이며, 검약에 이 도
를 아는 사람이 있어 심법을 전하노니 이 심법으로 인하여 후천개벽
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시입니다.

이 짧은 시에는 대신사의 비장한 각오와 함께 다시 개벽운수에
포덕천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어 있

습니다.

이 시를 음미하다 보면 스승과 제자 간의 정과 믿음이 강물 같이 흐르고,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확연하게 들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신 동덕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동덕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일기념 일인 오늘, 해월신사님의 삶과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교단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월신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천도교에 입도하기 이전의 성장기, 천도교에 입도하고 독공수련하여 북접주인(北接主人)이 되는 수련기, 도통을 이어받아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 활동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월신사님의 지극한 정성(精誠)입니다. 해월신사님은 매사에 정성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심 없는 지극한 정성이 한울을 감동시켰으며 도산검수의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천도를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해월신사님과 같은 순수하고 한결 같으며 씬 없는 정성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해월신사님의 ‘독실하게 공부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독실하게 수련하고, 천도교의 일에 너와 나 없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함께 이루어나가자는 부탁 말씀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세계의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시대를 기후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현대문명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공멸(共滅)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학자들과 미래예측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전환의 기간이 앞으로 20-30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현대문명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문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월신사님의 가르침 속에 이미 현대문명의 병폐(病弊)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처방전(處方箋)이 들어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월신사님은 일찍이 후천개벽설(後天開闢說)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가 개혁의 운수로 인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사람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개혁하는 인심개벽(人心開闢)이 근본해법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천지부모설(天地父母說)을 통해 우리 지구와 우주 전체가 부모와 같은 존재임을 밝히시면서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 같이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삼경설(三敬說)을 통해 한울님과 사람과 물건까지 공경하여 도덕의 극치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이야기 되고 있는 생명평화와 생태문명의 근본철학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천도교인은 이러한 해월신사님의 귀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고, 파국을 향해 치달리는 현대문명의 방향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해월신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고치면서까지 때를 쓰고 활용하라는 용시용활(用時用活)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 용시용활(用時用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에 순응하여 눈물을 머금고 고비원주(高飛遠走) 도피생활을 하셨으며, 교단의 기본 조직체계인 육임제(六任制)를 실시하는 등 포덕교화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교단의 의례(儀禮)를 때에 맞추어 정비하셨는데, 그 백미(白眉)가 향아설위제법(向我設位祭法)입니다. 그리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하셨으며 도원기서를 편집하여 감추어 소중히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경복궁 침략으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나라를 구하고자 동학혁명 총기포령(總起包令)을 내리는 결단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천명에 따라 행하신 일이요, 시기를 살펴서 행동에 옮기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월신사님의 시대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과 통찰력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동덕 여러분!

중앙총부에서도 이러한 해월신사님의 용시용활(用時用活) 가르침에 따라 교단 발전과 지방 교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장님들의 교단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하기 위해 전국교구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교구장님들의 집단지성(集團知性)으로 도출된 제안을 분석하고 단기,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해서 시책으로 구현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원회에서는 정기수련을 실시하여 연원회 역할 정립과 신앙 중심의 생활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하였습니다. 연원회와 현 기사를 중심으로 수련 중심의 교화방안을 마련하고 신앙심 회복과 포덕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 제일 목표인 보국안민의 실현은 통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사)동학민족통일회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류방안 등을 연구하여 장차 천도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회와 대학생단을 중심으로 청년교인들의 활동력을 높이고 즐겁게 교당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계는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절벽시대에 진입하면서 위기

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종교를 멀리하면서 교단의 장래를 위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모든 교단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단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월신사께서는 「개벽운수」에서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큰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 않은 것이 없느니라. 새 한울·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니라. 새 것과 낡은 것이 같지 아니 한지라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에, 낡은 정치는 이미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퍼지 못하여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할 즈음에 천하가 혼란하리라.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에 영웅호걸이 많이 날 것이니, 세계 각국에 파송하여 활동하면 형상 있는 한울님이요, 사람 살리는 부처라는 칭송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지금은 개벽운수 시대이니 무극대도의 도덕이라야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천도교인 중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동덕

님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교단중흥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부에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동덕님과 뜻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단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지일기념일을 맞이하여 한울님과 스승님의 감응으로 모든 동덕님이 괴질운수(怪疾運數) 속에서도 건강하고 만사가 여의(如意)하시길 충심으로 심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8월 14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중 심 고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쯔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쯔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종 을 시 고 종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종 을 시 고

제29장 지일기념가

1. 장 -- 하 도다 오 늘 은
 2. 장 -- 하 도다 오 늘 은
 3. 장 -- 하 도다 오 늘 은

1. 팔 월 십 사 일 --
 2. 팔 월 십 사 일 --
 3. 팔 월 십 사 일 --

1. 사 - 해 운 - 중 밝 은 달 이
 2. 해 - 월 신 - 사 승 통 한 날
 3. 해 - 월 신 - 사 무 극 대 도

1. 솟 아 울 - 라 서 --
 2. 도 통 이 어 받 서 --
 3. 이 어 받 - 은 날 --

1. 어 든 세 - 상 명 랑 하 게
 2. 이 세 교 - 조 되 - 셔 서
 3. 어 든 세 - 상 밝 아 온 날

1. 비 취 주 - 신 날 -
 2. 세 상 건 지 신 날 -
 3. 창 생 살 아 난 날 -

1. 영 -- 원 - 히 찬 연 토 다
 2. 영 -- 원 - 히 찬 연 토 다
 3. 영 -- 원 - 히 찬 연 토 다

1. 지 일 기 - 념 일 -
 2. 지 일 기 - 념 일 -
 3. 지 일 기 - 념 일 -

후렴

보 - 아 라 휘 날 리 는

궁 을 깃 - 발 을 -

이 - 땅 위 - 에 궁 을 꽃

피 워 를 - 보 세 -

守心正氣(수심정기)

人能清其心源 淨其氣海 萬塵不污 慾念不生天地精神總歸一身之中 心無清明其人愚昧 心無塵埃其人賢哲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의 근원을 맑게 하고 그 기운바다를 깨끗이 하면 만진이 더럽히지 않고, 욕념이 생기지 아니하면 천지의 정신이 전부 한 몸안에 돌아오는 것이니라. 마음이 맑고 밝지 못하면 그 사람이 우매하고, 마음에 티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현철하느니라.

燈得膏油以後光焰明明 鏡得水銀以後照物昭昭 器得火炎熔煉以後 體質堅堅 人得心神教訓以後 意思靈靈矣

등불은 기름을 부은 뒤에라야 불빛이 환히 밝고, 거울은 수은을 칠한 뒤에라야 물건이 분명히 비치고, 그릇은 불에 녹아 단련된 뒤에라야 체질이 굳고 좋으며, 사람은 마음에 한울님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신령한 것이니라.

身體心靈之舍也 心靈身體之主也 心靈之有 爲一身之安靜也 慾念之有

爲一身之擾亂也

몸은 심령의 집이요 심령은 몸의 주인이니, 심령의 있음은 일신의 안정이 되는 것이요, 육념의 있음은 일신의 요란이 되는 것이니라.

心靈惟天也 高而無上 大而無極 神神靈靈 浩浩蕩蕩 臨事明知 對物恭之 思之則 天理得焉 不思之則 不得衆理矣 心靈思之 六官不思之 以心靈明其心靈 玄妙之理 無窮之造化可得而用之 用之則 滿乎宇宙之間 廢之則 藏乎一粒之中矣

심령은 오직 한울이니, 높아서 위가 없고 커서 끝이 없으며, 신령하고 호탕하며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함에 공손하니라. 생각을 하면 한울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않으면 많은 이치를 얻지 못할 것이니, 심령이 생각하는 것이요, 육관(눈·귀·코·혀·몸·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현묘한 이치와 무궁한 조화를 가히 얻어 쓸 수 있으니, 쓰면 우주 사이에 차고 폐하면 한 쌀알 가운데도 감추어지느니라.

鏡不蔽垢則明 衡不加物則平 珠不渾 則光矣 人之性靈也如天之日月 日中則萬國自明 月中則千江自照 性中則百體自安 靈中則萬事自神矣

거울이 티끌에 가리우지 않으면 밝고, 저울에 물건을 더하지 않으면 평하고, 구슬이 진흙에 섞이지 않으면 빛나느니라. 사람의 성령은 한울의 일월과 같으

니, 해가 중천에 이르면 만국이 자연히 밝고, 달이 중천에 이르면 천강이 자연히 빛나고, 성품이 중심에 이르면 백체가 자연히 편안하고, 영기가 중심에 이르면 만사가 자연히 신통한 것이니라.

廣廈千間 主人不能保護 其棟樑風雨倒壞 可不懼哉

넓고 큰 집이 천간이라도 주인이 잘 보호치 않으면 그 기둥과 들보가 비바람에 무너지나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我心不敬天地不敬 我心不安天地不安 我心不敬不安 天地父母長時不順也 此無異於不孝之事 逆其天地父母之志 不孝莫大於此也 戒之慎之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은 천지가 편안치 않은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부모에게 오래도록 순종치 않는 것이니, 이는 불효한 일과 다름이 없느니라. 천지부모의 뜻을 거슬리는 것은 불효가 이에서 더 큰 것이 없으니 경계하고 삼가하라.

猛虎在前 長劍臨頭 霹靂降下 不懼 唯獨無言無聲之天 常畏懼矣 人皆由人之禍福當場易見 無形無言天之禍福難見矣

사나운 범이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리어도 무섭지 아니

하나,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한울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니라. 사람이 다 사람으로 연유하여 생기는 화복은 당장에 보기 쉬우나,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한울의 화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니라.

世人皆謂蜀道險難矣 蜀道無險人心尤險

세상 사람이 다 촉도가 험난하다고 이르나, 촉도가 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길이 더욱 험한 것이니라.

守心正氣 四字 更補天地 隕絕之氣 經曰「仁義禮智先聖之所教 守心正氣惟我之更定」若非守心正氣則 仁義禮智之道 難以實踐也 吾着睡之前 曷敢忘水雲大先生主 訓教也 洞洞燭燭 無晝無夜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라」하셨으니, 만일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운대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으리오.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

諸君 能知守心正氣乎 能知守心正氣之法 入聖何難 守心正氣萬難中第一難也 雖昏寢之時 能知他人之出入 能聽他人之言笑 可謂守心正氣也 守

心正氣之法 孝悌溫恭 保護此心如保赤子 寂寂無忿起之心 惺惺無昏昧之心 可也

그대들은 수심정기를 아는가. 능히 수심정기하는 법을 알면 성인 되기가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수심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니라. 비록 잠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웃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가히 수심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수심정기하는 법은 효 · 제 · 온 · 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 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깨어 흥미한 마음이 없게 함이 옳으니라.

心不喜樂 天不感應 心常喜樂 天常感應 我心我敬 天亦悅樂 守心正氣 是近天地我心也 眞心 天必好之 天必樂之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한울이 감응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한울이 언제나 감응하느니라.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한울이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수심정기는 바로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이 반드시 좋아하고 한울이 반드시 즐거워 하느니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신사 약력

- 포덕전33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탄생하시다.
부친은 경주 최씨(慶州 崔氏) 종수(宗秀),
모친은 월성 배씨(月城 裴氏).
본래 이름은 경상(慶翔), 포덕 16년에 시형(時亨)으로 고치시다.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이시다.
- 포덕 2년(1861) 35세에 경주 용담에서 입도하시다.
- 포덕 4년(1863) 7월, 대신사로부터 해월(海月)의 도호를 받으신 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에 임명되시다.
8월 14일, 대신사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시다.
- 포덕 8년(1867) 10월, 「양천주(養天主)」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12년(1871) 3월, 영해에서 교도 6백여 명을 동원,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13년(1872) 1월, 「대인접물(待人接物)」에 대한 설법을 하시다.
- 포덕 21년(1880) 5월, 인제군 갑둔리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하시고
6월 15일, 경전 간행 치성제를 행하시다.
- 포덕 22년(1881) 6월, 단양 남면 삼골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시다.
- 포덕 24년(1883) 2월, 충청도 목천에서 『동경대전』 1,000부를 간행하시다.
- 포덕 25년(1884) 10월, 조직편제의 하나로 6임제(六任制)를 정하시다.
- 포덕 26년(1885) 9월,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의 설법을 하시다.

- 포덕 31년(1890) 11월, 금릉군 복호동에서 「내수도문」과 「내칙」을 반포하시다
- 포덕 32년(1891) 10월, 「임사실천(臨事實踐) 10개조」를 반포하시다.
- 포덕 33년(1892) 10월에 공주에서, 11월에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하시다.
- 포덕 34년(1893) 1월, 「천지부모」에 관한 통유문을 반포하시다.
 2월, 교조신원을 위해 광화문전에서 복합상소,
 3월,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 원평에서 3만여 명이 모여
 척왜양창의 운동을 하시다.
- 포덕 35년(1894) 3월 21일, 백산에서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가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린다.
 5월, 청일양군(淸日兩軍)이 상륙하여 주권을 침해하자
 9월 18일, 해월신사는 옥천 청산에서 총 기포령을 내려
 항쟁에 나서게 하다.
 12월, 공주전투를 고비로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혁명운동은 잠정상태로 들어가다.
- 포덕 38년(1897) 4월 5일, 「향아설위」의 의식을 행하시다.
 12월 24일, 도통을 의암성사께 전수하시다.
- 포덕 39년(1898) 4월 5일, 원주 송골에서 관헌에게 피체되시어
 6월 2일, 한성(경성)감옥에서 72세를 일기로 교수형으로 순도하시다.

사인여천 (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

주최·주관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